



배포일자 : 2026년 9월 18일(금)

오세희 위원장, 네일폴리쉬 사용기한 규제 개선으로 K-뷰티 경쟁력 높인다

- 해외 주요국 유연한 기준 반영해 네일미용업계 부담 줄일 제도 개선 추진
- 식약처 참석해 현장 목소리 경청...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합리적 안 마련 지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오세희 위원장(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8일, 정부와 네일 미용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네일폴리쉬 화장품의 재고 부담을 덜고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 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과 전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사)대한네일미용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일폴리쉬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공동주최하고, 네일미용업계와 제조업계가 만나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경청하였다.

오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네일폴리쉬 화장품은 제조일로부터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한을 딱 정해둔 것이 아니다 보니, 현장에서 과도한 제품 폐기와 재고 관리의 부담이 있다.", "이런 때 정부가 관련 업계를 규제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고충을 경청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사)대한네일미용사회 강문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직접 구매제품의 사용으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있다."며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네일화

장품의 올바른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주)샤인위드 박효진 본부장은 “네일아티스트로서 20년을 활동하며 유통기한에 대해 고객들의 컴플레인을 많이 겪었다.”며 “네일제품은 오래 쓸 수 있지만, 증명할 길이 없고, 한 해만 지나도 고객들은 못 쓰는 것이라 생각하며, 병 자체의 환경적인 부담도 커서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제조업계의 (주)엔스의 홍준기 연구소장은 “네일 폴리쉬 제품 특성상 탈색, 침강, 변취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네일 폴리쉬 제품과 네일 젤 제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설정 시 위와 같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영진 국장은 “네일샵 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나라는 사계절로 인해 계절별로 네일폴리쉬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그것은 재고로 쌓이는 문제가 있고, 결국 사용기한 문제로 이어진다”며 “식약처가 100% 문제 해소는 어렵겠지만, 영업을 함에 있어, 식약처가 최대한 상의하고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오 위원장은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 개진된 현장의 귀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식약처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